연길청년자원봉사대, '청기병'이란 새 이름 생겨

고중입시, 대학입시 기간에 그들은 시험장 밖에서 애심봉사를 제공한다. 향진학교에서 그들은 '작은 소원'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학생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전한다… 그들이 바로 연길청년자원봉사자들이다. 다년간, 연길청년자원봉사자들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히 나타나 청춘의 힘을 공헌하면서 사회각계의 호평을 받아왔다.

봉사, 우애, 상호 협조, 진보의 청년자원봉사 정신을 고양하고 청년자원봉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저 올해 공청단연길시위와 연길시청년자원봉사자협회에서는 공동으로 연길청년봉사대에 '청기병'(青奇兵)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고 로고를 만들었으며 그들만의 전용 조끼도 제작했다.

2월 21일, 전용 조끼를 입은'청기병'들이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선을 그려냈다.

공청단연길시위 부서기인 김덕원은 "예전에 연길청년봉사자들은 통일된 복장과 로고가 없었다. '청기병' 대오의 가치관과 사명을 더욱 잘 전달하고 자원봉사자 대오의 전문 형상을 제고하며 더욱 많은 봉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 사회의 존중과 인정을 받도록 하고저 디자이너를 청하여 '청기병'로고와 전용 조끼를 제작했다."라고 밝혔다.

김덕원의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청년련합회 위원인 김평이 주동적으로 100벌의 전용 조끼를 무료로 설계, 제작해 가져왔다. 여러 차례의 교류를 거쳐 연길 특색, 청년 특색, 자원봉사 특색을 구현하는 설계 구상을 확정했고 재빨리 효과도를 설계해냈다.

료해에 따르면 조끼는 록색으로 청춘의 생기발랄함과 연길의 청산록수를 상징한다. 로고의 설계에는 준마, 좋아요, 날개 등 3가지 요소를 융합하였으며 구호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바치다'를 더하였는데 이는 앞장서는 정신, 영원히 정상을 다투는 추구와 나래를 펼치고 비상하는 기상을 대표한다.

현재, '청기병' 연길청년자원봉사자 대오에는 100여명의 구성원들이 있다. 2월 1일부터 '문명관광,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자원봉사자 대오는 연인수로 3,500여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에 봉사했다.

김덕원은 "다음 단계 '청기병'은 공청단연길시위와 청년자원봉사자련합회의 인솔 아래 당과 정부가 관심하고 사회가 주목하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회공익사업을 둘러싸고 새시대에 립각하여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연길시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공헌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 리전기자

안도현, 도시 관리 난제 해결

안도현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는 시종 군중들을 위해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봉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

2023년, 안도현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는 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으로부터 '토대를 강화하고 작풍을 전환하며 형상을 수립'하는 전문 행동돌출 단위와 개인으로 선정되였다. 이외, 연변조선족자치주정신문명건설사업선진단위, 안도현 '두가지 쟁취 한가지 만족' 민생실사해결 선진집단 등 많은 영예를 안았다.

군중들을 위한 봉사에 온도가 있었다. 사업을 보다 진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집법대대는 '도시관리일군들이 말하다(城管说)' 자원설명봉사단을 조직하여 '20차 당대회 정신 선전강연 + 법률 보급선전 + 사회구역 난제 해결' 방식으로 집법사업을 전개하고 여러 사회구역과 함께 '공동주재, 공동건설'을 진행하며 군중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준과 군중들이 도시 관리에 참여하는 공동관리의 적극성을 제고시켰다. 2023년부터 30여차례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2개 조례〉 전단지 1,300여부를 배포했다.

난제의 해결에 속도를 가했다. 시장, 광장, 공원 주변의 림시 로점을 질서있게 개방하고 4개의 림시 편민매점을 설치하였으며 림시 로점 500여개를 확정하여 1,000여명의 취업난 문제를 해결했다. 기업을 조률하여 아침시장과 야시장 상인들에게 통일된 간판을 제작해주고 밥상과 의자 등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아침시장과 야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규범화하고 개선하여 '경영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안도 '밤경제'의 번영, 발전을 추진했다. 이외, 집법대대는 환경이 어지럽고 란잡한 곳과 불법 건물, '록화를 훼손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등 군중들의 관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구역에 대한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하여 불법 건물, 공공록화 훼손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군중들의 리익을 절실하게 수호했다.

행동의 락착에 태도가 있었다. '도로 사무'의 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종합정비, 폐자동차, 불법 건물, 야외 광고간판 안전 정비, 음식점 기름연기 오염 정비 등 5대 도시환경 정비 전문 행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실효성의 촉진으로 도시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해결했다. 현재까지 291건의 류동 로점 문제를 다스리고 도로를 점유하고 경영하는 93곳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170여곳의 임의로 방치하고 불법으로 점포를 확장하는 현상을 해결했다. 5곳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229곳의 간판을 정돈하고 8곳의 교정 주변 류동식품 로점상을 단속했다.

안도현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는 도시의 청결화, 질서화를 제고하는 데 공을 들이고 봉사, 관리, 집법 '3위 1체'의 도시관리집법의 새로운 모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며 기층 사회관리업과 도시관리사업의 유기적인 융합으로 안도현의 도시 관리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조력했다.

/ 정현관기자

길림 소방관들, 평안한 음력설 안전 확보해

전 성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있어서 공휴일은 더 바쁜 때이다. 음력설 기간 소방관들은 항상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중들의 안전을 지켰다.

2월 9일, 섣달그믐날 새벽 5시 50분, 아침체조, 내무정리, 청소, 소방설비 점검 … 음력설을 보내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돈화시 신빈로소방구조소의 소방관들은 이렇게 긴장하고도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백성들은 명절을 보내고 소방관들은 관문을 지킨다. 소방관들에게 휴일과 공휴일이란 없다."고 돈화시 신빈로소방구조소의 정치지도원 류뢰가 말했다.

오전 8시 30분, 신빈로소방구조소의 소방차 3대, 대원 12명은 륙정산풍경구와 시내 각 상권에 파견되여 순찰근무를 전개했다. 소방관들은 소방안전의 잠재적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장효봉은 이 소방구조소에서 14년간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이다. 음력설을 앞두고 장효봉의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다리가 골절되여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장효봉은 4일간의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모시고 수술을 했으며 수술이 끝나자 곧바로 소방구조소로 복귀했다.

"나는 베테랑 소방관이다. 중요한 시간일수록 더욱 앞장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장효봉은 자부심에 차서 말했다.

어둠이 점차 드리우자 오색의 등불과 함께 폭죽이 터지고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에 솟아오르면서 돈화시를 온통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물들여 놓았다. 하지만 소방구조소의 모든 소방관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시 23분, 신고 전화가 울렸다. 돈화시 한장향 풍성촌의 한 단층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화재로 인한 큰 손실은 없었다.

22시 13분, 비상별이 다시 울렸다. 돈화시 빈강공관의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출동했고 12분 만에 위험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섣달그믐날 밤, 신빈로소방구조소는 도합 6건의 화재를 진압했다. 마지막 화재를 진압하고 나니 이미 새벽이 되였다. 일부 군중들은 집에서 갓 삶은 만두를 소방관들에게 전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먹으면서 모든 소방관들은 군중들이 보내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

"군중들의 평안, 백성들의 인정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가치 구현입니다." 소방관 단효봉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료해에 따르면 섣달그믐날, 전 성의 소방구조대는 모두 1,145개의 근무 지점을 설치하고 439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582곳에서 화재 위험을 발견하고 처리했다. 광범한 소방관들은 순찰 일선에서 분투하고 응급구조의 전쟁터에서 돌격하며 감독검사 일선과 당직 진지를 굳건히 지키면서 인민대중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확보했다.

/ 길림일보

안도 '3등공의 집' 누구네 집일가?

최근 안도현인민무장부, 안도현퇴역군인사무국과 안도현신합향정부의 사업일군들로 구성된 희소식 전달 대오가 3등공을 세운 안도현 신합향 길방자촌 현역군인 학리비에게 희소식과 함께 현판 및 위문금을 전달하고 군인가족에 축하를 표했다.

학리비는 2004년 9월에 입대해 현재 중부전구의 모 부대에서 복무중이다. 20년간의 군대 생활에서 그는 뛰여난 업적을 이룩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짊어져 상급이 포치한 제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2023년, 학리비는 전쟁준비훈련에서 3등공을 수여받았다.

학리비의 아버지도 퇴역군인으로 '3등공의 집'이라는 현판을 받은 순간 기쁨과 격동에 넘쳐 "아들이 상을 받게 되여 매우 자랑스럽다. 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리고 아들이 부대에서 더욱 분발하여 고생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군인의 정신을 발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리비는 당과 정부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하여 훌륭한 군인의 작풍과 우량한 품성을 발양하겠다고 표했다.

안도현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군인들의 가족에 전달하여 군대를 옹호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양함과 아울러 군인의 영예감과 군인가족의 자부심을 제고시켜 '한 사람이 군대에 가면 온 가족이 영광스럽다.'는 량호한 기풍을 조성하고 군인이 부대에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려는 신심을 확고히 하였다.

/ 리전기자